

# 법정 거짓말사범 무더기 적발

검찰이 거짓말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위증사범들을 대거 적발했다.

아울러 법률에서 정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들도 무더기로 적발, 이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올해 상반기 재판 중 거짓말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벽돌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위증 연습을 시킨 조직폭력배(가해자)와 위증에 나선 목격자를 구속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친구에게 단속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로 구속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 추적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증인(친구)이 단속장소에 없었으며 단속 뒤 피고인이 증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확인, 위증의 전모를 밝혀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돈을 건넌 뒤 "추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해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이도 붙잡혔다.

검찰은 특히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 47명도 적발, 이들에게 국선변호인 보수와 증인 예비 등 총 1797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케했다.

실제 범행을 부인하며 총 10회의 기일 동안 6명의 증인신문을 하게 한 무고 사범에게 88만52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판결 선고를 이끌어 냈다.

또 폭행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강력 부인한 피고인에게 20만1800원 상당의 소송비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단속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한 피고인에게 41만20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정 거짓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의 열려가 있는 경우, 위증죄 처벌 가능성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증인신문을 통해 사전에 위증을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방어권 남용 사범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쳐 신속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주지검, 총 30명 적발해 형사입건...4명 구속 방어권 남용 47명 적발...소송비용 부담 등 엄단

한편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 음주와 교통 관련 사범 총 51명에 대한 실태를 이끌어 냈다. 이는 광주·전남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

고 발생율이 118.8건으로 전국 평균 98.3건보다 약 20.8% 높는데 따른 처벌을 강화한 결과다. 지난해 지역 내 교통사고는 5.2% 감소했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현재 41.4%로 추산된다. 이는 마약류사범 재범률인 38.7% 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운전자의 식수준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해 공판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양형자료 제출과 양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춘정 기자



꽃과나비 3일 오후 경남 남해군 이등면 인근 한 도로가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망울에 앉아 꿀을 따고 있다.

## 월남전참전자회, 간부 임명 금품 수수설 논란

보훈단체인 월남전참전자회 전남지부 일부 지회장들이 중앙회의 시·도지부장 임명 과정에서 금품 수수설을 제기해 논란이다.

월남전참전자회 전남도지부 시·군지회장 등 13명은 월남 중앙회가 간부 임명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최근 여수를 방문한 강성복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11명의 이사 및 사무부서장, 16개 시·도지부장 및 사무국장, 225개의 시·군·구 지회 및 5개 직할회 회장, 14개의 해외회 회장 및 간부들의 임명 과정에서 일부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있으며, 2개의 예금통장 계좌와 거래내역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70세가 넘는 나이에 참전 유공자들이 오죽하면 소속 단체의 부끄러움을 고발하겠냐"며 "지방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단체의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 명쾌하게 파헤쳐 달라"고 썼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월남 지회장 등 임명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일부 간부들은 수천만원을 건네고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자 중앙회에 항의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출 났으나 간부 임명 과정에서 또 다시 내용에 휘둘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이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 확인' 및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져분신청' 등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달 중순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항소 여부가 남아 있다.

월남 중앙회 관계자는 진화통화를 통해 "수년간 겪은 내용을 극박하고 지난 3월 중앙회장을 선출했으나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중"이라며 "현 회장 선출전 출범한 개혁위원회가 심시일만 모금액 소송 등에 사용한 금액이지만, 임명에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은 되돌려 줬고 쓴 금액도 단체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일부 간부 고발장·진정서 통해 수천만원 오갔다 폭로

월남중앙회 "조직 안정위한 자발적 모금액, 돌려줬다"

를 돌려받은 것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2012년 4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연간 약 30여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로 알려졌다.

지난 수년간 겪던 내용이 수습되면서 올해 3월 중앙회장이 새로 선

## 인도여성 5번째 산(酸)공격 당해

앞서 4차례에 걸쳐 산(酸) 공격을 당했던 인도 여성이 또다시 같은 공격을 당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 북부 러크나우 여성쉼터에서 살고 있는 35세 여성에게 한 남성이 벽을 올라타 산성용액을 쏟았다. 남성은 현장에서 사라졌다.

법적인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여성은 전에도 산 공격을 당한 적이 있더라 경찰이 24시간 내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무장경찰은 여성쉼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2008년 재산분쟁으로 두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과 산성공격을 당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형사 소송을 취하하려는 협박과 함께 산성공격을 당했다. 지난 3월에는 딸들과 함께 여행 중이던 기차에서 산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도록 강요당했다.

남성 두 명은 일련의 산공격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이 여성은 병원에서 얼굴과 어깨에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이다. 공식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인도에서 약 300건의 산성공격이 보고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공격자들은 남성으로 청혼 거절이나 재산분쟁 등을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정부는 수백명의 산성공격 생존자 등의 항의로 지난 2013년 산공격과 관련한 엄격한 법을 제정, 일반인들의 산성용액 구입을 제한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산성공격은 빈번없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IS, '알바그다디 사망설' 주장한 고위급 화형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최고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고위 인사들 산 채로 화형에 처했다.

일간 익스프레스는 3일(현지시간) 이라크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IS 고위 관계자인 아부 쿠타이다가 최근 이라크 북서부에서 화형당했다고 보도했다.

쿠타이다는 무슬림들이 행하는 금요 예배에서 연설 도중 알바그다디가 죽었을 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IS는 이에 그가 "반란을 선동했다"며 징벌했다.

IS는 내부적으로 알바그다디의 생존 여부에 의문을 품을 경우 누구라도 체찍질 50대에 처한다는 규정을 세워 왔다. 이는 소문을 통제하고 대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알바그다디의 사망설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미국 국방부는 올초 국제 연합군 공습으로 그가 중태에 빠졌다고 발표했지만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자국군의 시리아 공습으로 알바그다디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망 여부를 놓고 수차례 입장을 번복해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알바그다디는 당초 이라크 내 IS 거점으로 불리는 모술에 숨어있다가 연합군이 모술을 점령하자 탈출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만 여러차례 주둔지를 옮겨다녔다고 알려졌다.

## 佛 이슬람사원서 총격 발생 8명 부상

프랑스 남부 이비봉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2일 밤(한국시간 3일 오전) 2명의 괴한이 기도를 마치고 사원을 떠나는 무슬림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최소 7명이 부상했다고 프랑스 관리들이 확인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3일 보도했다.

2명의 괴한은 2일 밤 10시30분(한국시간 3일 오전 6시30분)께 이라흐마 사원을 떠나던 무슬림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권총과 산탄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르노 클리오 승용차를 타고 사원 앞에 도착해 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무슬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라 프 로방스지는 전했다.

총격 현장에서 4명이 부상했고 약 50m 떨어진 아파트 내에 있던 한 가족 4명이 유탄에 맞아 부상했다고 라 프로방스지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목격자들은 총격범들이 이슬람 사원을 떠나는 무슬림들을 고의로 겨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비봉 경찰 역시 현재 이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로르 사보트 행정관사는 이 총격이 젊은이들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